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
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•문의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41)

•담당자: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옥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91)

보도시점 : 2021년 6월 29일(화)부터

‘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를 모색하다’

-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, 제2차 성 평등 포럼 주최
- 코로나이후 여성노동시장의 위기와 취약성, 대응방안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재조명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사진 자료 있음]

-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(소장 이수인)는 29일 오후 2시 ‘코로나19와 젠더위기: 여성노동 변화와 과제’를 주제로 제2차 전북성 평등 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(ZOOM) 방식으로 개최하였다.
-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노동의 위기는 남성보다 노동 취약계층인 여성에게 더 집중,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비대면으로 인한 플랫폼 노동시장 확대와 디지털, 신기술기반 일자리 지형변화는 향후 여성노동을 어떻게 위협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 등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.
-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혜자(한국고용정보원, 연구위원)는 여성 고용취약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, 음식숙박, 교육서비스 및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코로나의 악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돌봄

노동의 중심에 선 여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질적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.

-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재난시기에 특히 여성노동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조치, 강요 등에 대해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정부의 대책, 지침을 이끌어 내는데 사회적 관심과 협력의 필요성, 피해자 노동구제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.
-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일상화와 장기화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와 여성고용의 구조적 취약성, 비대면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 변화가 향후 여성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용충격 회복에 대한 여성노동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.

